

# 보험의학 탄생의 배경

보험의학회지 편집위원장

Background of developing insurance medicine

Editor in chief *J Kor Life Insur Med Assoc*

보험의학은 대중에게 생소하고,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의사국가시험 과목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영보험업계에서 보험의학적 이론이 보험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또한 결코 적지 않다. 관련 교과서는 부족한데,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실무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역사나 정체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자료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특히 보험의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보험의사와 언더라이터 등 보험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의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의학발전사적 측면과 보험실무적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의학 발전사적 측면이다.

고대에 의학에 관련된 영역 즉, 환자와 질병치료는 과학이라기 보다는 종교적인 영역이었다. 의학에 관한 내용이 최초로 성문화된 자료는 기원전 1750년경 제작된 것 추정되는 함무라비법전이다. 함무라비법전의 기본 법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원리였는데, 칼로써 타인을 베었으나 그 행위로 인해 생명을 구하거나 비정상적인 신체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면 칼 쓴 자는 칼로 보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 정액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칼 쓴 자를 physician으로 표현한 것을 볼 때, 당시에 의사라는 사람들이 활동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질병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뱀기에의 의사였던 Ignaz Phillip Semeweiss(1818~1865)는 당시 사회적인 골칫거리였던 산욕기 사망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의사들의 불결한 손이 감염원이었음을 가정하고, 손 세척 후 사망률의 감소를 입증해 보였지만, 주변 의사들로부터는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Luis Pasteur(1822~1895)은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써의 세균을 부각시켜 병리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현미경 발명자로 유명한 Robert Koch(1843~1919)는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

졌고, 탄저균과 결핵균을 최초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데, 내과 계열에는 압의 표적치료 요법, 외과 계열에는 로봇수술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거의 대부분 환자와 질병치료에 관한 내용이다. 즉, 20세기 의학은 의료서비스 즉, 임상의학으로 대변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는 그 비용이 매우 높다. 기술 자체가 독점적일 뿐 아니라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의학, 특히 의사의 기능에 있어서 진료외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의견 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법의학과 의료감정학 및 장애 평가의학이라는 비임상의학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 아울러 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윤리적 측면을 따로 연구하는 의료 윤리학 이라던지 의료비용과 의료이용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의료경제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환자 개인의 치료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인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자연 과학적인 내용뿐 아니라 인문과학적인 이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인문사회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기도 한다. 보험의학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그 탄생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 즉,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의학적 지식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보험의학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영국에서 18세기 시작된 해상보험에서 그 담보 영역이 사망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의학적인 내용을 고려하게 되었다. 더불어 의사결정 주체 역시 개인에서 보험회사의 이사회로 발전되면서 그 판단 근거를 객관화 시키고자 하였다. 즉, 보험의학의 탄생을 언더라이팅 발전사적 측면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더라이팅은 의학언더라이팅에 국한된다. 최초의 의학 언더라이팅은 19세기 초반 영국의 The Society of Assurance for widows and orphans 라는 보험회사에서였는데, 연령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6개월 연기라는 할증기법을 적용하였다고 전한다. The Society for Equitable

Assurance for lives and Survivorship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의학언더라이팅을 시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의사가 최초로 의학언더라이팅을 시행한 사실은 1824년 G Pincard에 의해 서라 하는데, 표준하체인 경우 일률적으로 3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당시 성별, 연령 및 특정 질환의 장기예후에 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당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업의사가 최초로 의학언더라이팅을 실시한 기록은 1848년 캐나다 의사였던 Henry Melvil이었다<sup>(1)</sup>. 이는 지정의 진사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보험의학의 구성에 관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서구에서 제작된 문헌은 의학언더라이팅을 보험의학의 요체로서 주장하며, 그 내용 역시 사망률분석 기법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sup>(2)</sup>. 윤<sup>(3)</sup>은 진사를 비롯하여 사정, 연구 및 의제 등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이<sup>(4)</sup>는 자문과 검진으로 분류하였는데, 지급심사 단계에서 의학적 의견을 개진하는 클레임 의료자문을 보험의학의 영역으로 편입<sup>(5)</sup>시킨 것이 흥미롭다.

즉, 보험의학의 탄생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의학발전사적 측면으로의 고찰에 이은 두 번째 설명은 계약심사 및 지급심사라는 보험실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험의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성립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보험의학에 관한 문헌이 지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의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의학발전사적 측면으로 1900년대 이후 인문사회의학이 태동하면서 보험의학도 탄생하였다는 견해였고, 또 하나는 언더라이팅이라는 보험 실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험의학이 형성되었다는 설명이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더 정확할까라는 물음 보다는 두 요소가 함께 보험의학 태동에 관여하였다는 결론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Caplan J. A life insurance medical, 1848. Can Med Assoc J 2003; 169(12): 1331-2.
- (2) Pokorski RJ. Mortality methodology and analysis seminar text. J Insur Med 1988; 20: 20-30.
- (3) Yoon MS. Life insurance medicine. J Insur 1972; 9: 111-8.
- (4) Lee S. Ch32. Introduction of insurance medicine. In Korean Academy of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Disability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medical records- 1st ed. Seoul, Joongangmoonwhasa, 2010.
- (5) Lee S. Medical claims review in an emerging market. J Insur Med 2007; 39: 280-2.